

#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최현욱

한국 영화 이끌어갈 차세대 배우 새롭게 조명하는 배우 특집 프로그램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2025.6.6.~6.8.)가 올해 <넥스트 액터 NEXT ACTOR>의 일곱 번째 주인공으로 배우 최현욱을 선정해 화제다.



최현욱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NEXT ACTOR>는 백은하 배우연구소와 협력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잠재력 높은 배우를 집중 조명하는 배우 특집 프로그램이다. 2019년에 배우 박정민을 시작으로 고아성, 안재홍, 전여빈, 변요한, 고민시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가장 중요한 젊은 배우를 선정, 관객들에게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선사해 매회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선정된 배우 최현욱은 2021년 SBS 드라마 <모범택시>, <라켓소년단>을 통해 빌런부터 무공해 청춘 캐릭터까지, 놀라운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여 SBS 연기대상 남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다. 단숨에 주목받는 신인 대열에 합류한 최현욱은, 2022년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속 유쾌한 남자친구 '문지웅'을 시작으로 Wavve 오리지널 <악한영웅 Class 1> 속 의리의 파이터 '안수호', 2023년 U+tv 오리지널 <하이쿠기> 속 성적 최상위권의 천재소년 '서호수'를 연달아 연기하며 매 작품마다 색다른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이어 2023년 tvN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는 18세의 유쾌한 레트로 보이 '이찬' 역으로 변신해 청춘 배우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최현욱은 청춘 연기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 <D.P. 시즌2>를 통해 군대 내 억압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군인 '신아취'의 복잡한 감정선을 세심하게 그려냈으며, 최근에는 tvN 드라마 <그놈은 흑염룡> 속 분부장 '반주연' 역을 맡아 차가운 외면 속 인간적인 내면을 가진 미스터리한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해 또 한 번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

'무주산골영화제'는 "그간 작품 속에서 소년과 청년의 경계에 있는 10대 후반의 고등학생 역을 주로 맡아 대해 불가능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온 배우 최현욱은 최근 몇 년간 전문가와 대중들이 주목하는 최고의 신인 배우였다. 그는 어떤 캐릭터도 소화할 수 있는 연기자로서의 가능성과 스타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국내 가장 중요한 넥스트 액터"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영화제 기간 동안 배우 최현욱의 연기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작품 상영과 함께 GV(관객과의 대화) 및 스페셜 아티스트 토크, 사인회를 마련한다. 특히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최현욱의 무궁무진한 매력과 연기 세계를 조망하는 <넥스트 액터 NEXT ACTOR> 책자(백은하 배우연구소 발간)가 영화제 기간 중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배우 최현욱을 선정해 더욱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합미산성' 5차 발굴 착수

백제 마돌현 치소성 추정



합미산성 동남쪽 성벽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23일부터 마령면에 소재한 '합미산성'에 대한 제5차 발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유산청의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되는 2025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의 일환이다.

합미산성은 해발 400m 내외의 섬진강 최상류 산봉우리에 위치한 산성으로, 2017년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고대 백제·가야·신라의 세력들이 섬진강 유역과 서해안 일대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교통의 요충지로 평가받는다.

성의 둘레는 약 608m에 이르며, 현재는 대부분의 성벽이 붕괴된 상태다. 다만 동남쪽 능선

약 70m 구간에서는 성벽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어 주목된다.

특히 백제시대에 축조되어 후백제 시대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북지

역의 백제·후백제 역사문화권의 대표적인 산성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밀 발굴에 앞서 시굴조사를 먼저 실시해 유적의 성격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서쪽 성벽 인근의 가장 낮은 지형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집수시설 유적을 중심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선 발굴에서는 남문지와 성벽, 일부 건물지 등이 제한적으로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합미산성의 축성 기술과 변천 과정 등 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향후 산성 내 건물지 등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중장기 조사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합미산성과 관련된 영상은 진안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배방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즐거운 국악산책' 운영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문화 소외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과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25 즐거운 국악산책'을 운영하며, 국악의 율림을 담은 따뜻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전통예술 활동을 통해 국악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북 영동군 환간초(4.17.~18.), 경남 창원시 하천초(5.15.~16.), 충남 보령시 남포초(5.22.~23.) 등 총 3개교가 참여하며, 현재 1개교의 일정을 마치고 나머지 학교도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박 2일 일정은 △관현악원 음악회 관람 △전통예술 감상(강강술래) △판소리 배우기 △

남원 지역 문화유적지 탐방 △남원항공우주전문대, 남원수학체험센터, 어린이과학체험관 견학 등으로 구성, 학생들은 공연, 강습, 해설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낯설었던 전통예술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2025 즐거운 국악산책은 오는 6월 중 하반기 참가학교를 모집공고를 진행하며, 9~10월 중 최대 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063-620-2324)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도립미술관, 아이스크림 동展

좋아함 · 싫어함 경계 묻는 전시형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예선)은 4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시형 교육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동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동展'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구분하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감정이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번 전시는 관람자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스스로 질문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전시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협오와 추앙의 감정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전시장은 세 가지 주제 구역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구역 <달콤함 아이스크림>은 '완벽함', '사랑스러움' 등 긍정적인 단어로 이뤄졌다. 두 번째 구역 <더러운 동展>은 거대한 동 조형물이 주는 불편한 감정에 대해 질문하는 공간이다. 세 번째 구역 <동 아이스크림>은 동과 아이스크림이 뒤섞인 가운데 이 두 감정 사이의 경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한다.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시실 내부에는 질문 카드를 통해 감정과 인식의 형성 과정을 돌아보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 <달콤함과 더러움 사이에서>가 운영된다. 또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어린이 대상의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내 머리 위의 아이스크림 동展>, 감정의 경계를 조형으로 표현하는 단체 프로그램 <이상한 아이스크림 가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의 문제의식을 관람객 각자의 경험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씨네투어X산책' 개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오는 5월 2~5일 '전주씨네투어X산책'을 진행한다.

올해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전주의 핵심적인 조선시대 문화유적인 전라감영 서편부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전라도의 수도였던 전라감영 서편부지에서 '조선잡' 공연과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5월 2일 오후 7시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전주씨네투어X산책 '이상밴드'와 '선을 모리'의 조선잡 공연을 시작으로 페퍼톤스의 대표곡들로 가득찬 20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을 담은 <페퍼톤스 인 시네마: 에브리씽 이즈 오케이>를 세계 최초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5월 3일 오후 3시에는 2024년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인 미야게 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7시부터 '온도', 'JIP' 조선잡 공연과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인생을 아우르는 20곡의 연주를 만날 수 있는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를 상영한다.

5월 4일 오후 3시에는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수경공상 작품상을 수상한 <관찰아 관찰아 관찰아>가 상영된다.

5월 5일 오후 3시에는 2024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수 분간의 음원이>가 상영되며 영화가 끝난 뒤 오후 7시부터는 전통 창작 음악그룹인 '거꾸로프로젝트', '달달달'의 조선잡 공연이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

# 전주문화재단, '전주 마을 기록 AI 크리에이터' 수강생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오는 30일까지 '전주 마을 기록 AI 크리에이터' 강좌 수강생을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쓰기 방법을 다루는 AI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좌는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이번 강좌를 모두 마친 수강생들은 전주의 다양한 마을 자원과 관련된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전주문화재단 카드뉴스'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